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등 KSL 학습자를 위한
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2023년 2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추 경 연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등 KSL 학습자를 위한 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권성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추 경 연

추경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17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권 성 미 (인)

목 차

영문 초록	v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	5
II. 외국어 교육을 위한 시 쓰기 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6
1. 글쓰기의 의의	6
2. 문학적 글쓰기의 효용과 문학치료적 관점	8
3. 외국어 교육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의 필요성	12
III. 중등 KSL 학습자 대상 시 쓰기 교육의 원리와 실제	19
1. 한국어 교육과정(KSL) 내용 체계 및 쓰기 성취 기준	19
2. 교재의 구성과 쓰기 교수요목	25
3. 중등 KSL 쓰기 영역 글쓰기로서의 시 쓰기	31

IV. 중등 KSL 학습자를 위한 시 쓰기 교육 설계	34
1. 시 쓰기 교육의 목표	34
2. 시 쓰기 지도 원리	36
3. 시 쓰기의 단계	39
가. 글감 찾기	40
나. 중심 시상 정하기	41
다. 표현하기	42
라. 다듬기	44
마. 나누기	46
4. 수업에서의 시의 주요 개념과 교재의 선정	49
가. 시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	50
(1) 이미지	50
(2) 시적 화자	51
(3) 운율	52
(4) 은유	53
나. 교수요목에서의 개념 지도 시 주안점	54
다. 교재의 시 선정	56
5. 시 쓰기 교수·학습지도안	65
V. 결론	72
참고 문헌	76

표 목차

<표 1> 한국어 교육과정(2017) 내용체계	21
<표 2> 쓰기 성취 기준	23
<표 3>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1 교수요목 ..	28
<표 4>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쓰기 교수요목	30
<표 5> 다듬기 단계의 확인 사항	46
<표 6> 시 쓰기의 단계 주안점	48
<표 7> 시의 주요 개념	55
<표 8> 학습자료1 (원어)	59
<표 9> 학습자료2 - 학생 시(나무)	60
<표 10> 학습자료3 - 학생 시(시간)	61
<표 11> 학습자료4 - 학생 시(제주도)	62
<표 12> 학습자료5 - 학생 시(신기한 존재들)	63
<표 13> 교수·학습지도안 자료 - 학생 시(내 방의 주인)	66
<표 14> 시 쓰기 교수·학습지도안	67

그림 목차

[그림 1] 중·고등학교 한국어(KSL) 교재 모듈화	26
[그림 2] 시 쓰기 단계	39



A Study on Poetry Writing Education for Secondary KSL Learners

Gyeong Yeon Chu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Until now, poetry writing has been educated in relation to the creation of works in literary education. However, most learners do not enjoy writing poetry, rather find it difficult to write poetry. The reason is that the writing of poetry necessary for literature implicitly requires the creative standards of professional writer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require the same completeness as literary works created by professional writers in learners' poetry writing. What matters is that learners enjoy writing poetry and feel the joy and benefits of literature from poetry.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for this purpose is to discuss poetry writing not in terms of literary education but in various types of writing.

This study approaches poetry writing education for secondary KSL learners as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riting area. Secondary KSL learners can advance to the goal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writing poems in Korean in the writing area

and exchanging appreciation and advice with classmate learners about poetry.

In other words, you can write literary writings through instant writing, experience writing poems that express emotions in Korean, and develop your ability to express them in Korean. In addition, they will develop their communication skills in Korean from emotional perspective by presenting their poems and discussing them with classmate learners.

Unlike writing poetry required by literature education, this paper aims to reduce the burden of writing poetry by teaching poetry writing as one of various writing, and to present the most basic poetry writing education principle so that learners can feel familiar with writing poetry in their lives. In addition, I tried to present the stage of writing poetry and its content in detail so that learners who didn't know how to write poetry could write poetry according to its procedure. Finally, I presented an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as a poetry writing education plan for secondary KSL learners.

Research on poetry writing in the Korean writing area for KSL learners has not yet been existing. With regard to this,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has fastened the first button. In the future, I am looking forward to discussing poetry writing education in the writing area more and more. The scope of research discussing poetry writing in the writing area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vast, so I hope that it will be further subdivided and deepened into various

items in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Poetry writing education in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poetry writing education for secondary KSL learners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 한국어교육을 받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령기 청소년, 곧 중등 KSL 학습자들에게 시 쓰기를 통해 문학적인 글쓰기의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게 하고 한국어 학습에 동기를 불어일으키며 쓰기를 통해 한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시 쓰기 교육이 한국어교육 쓰기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수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의 이해라는 교육 측면은 ‘문학’, 또는 ‘문화’의 범주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문학적인 글은 한국어교육 측면에서는 언어자료로서, 그리고 한국의 생활과 문화의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문학 작품으로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 쓰기 교육은 한국어교육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시를 언어 자료로 활용하는 관점이나 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관점과는 달리, 학습자가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등 KSL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 교육을 논의하고, 수업에서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의 대상이 중등 KSL 학습자이지만 시 쓰기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시 창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문학과 국어교육에서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시 교육 연구는 처음에는 텍스트 해석 방법 면에서 이루어졌고 텍스트의 생산이라는 측면에 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영희(1995)는 시 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었는데, 글쓰기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글쓰기 행위를 메타언어적 글쓰기라고 말하면서 작가가 텍스트로 구현해나가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 박사학위 논문 유영희(1999)에서 시 창작 교육에 이미지 형상화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정정순(2005)¹⁾은 시로 표현될 수 있는 체험이 실제 형상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다루었고, 다른 논문(2005)²⁾에서 운율 실현의 원리를 다루면서 시 쓰기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정순(2007)은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시 쓰기 교육의 내용 범위와 계열의 제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시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학교 교육에서 시 쓰기 교육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

1) 정정순(2005). 「시적 형상성의 교육내용 연구」

2) 정정순(2005). 「운율 실현의 원리를 활용한 시 쓰기 교육 연구」

여지면서 시 쓰기 교육의 필요성, 시 쓰기 교육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국어과 교육 중 문학의 목표에서 창작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쓰기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해 문제 제기와 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지엽·유동순(2011)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시 쓰기 교육의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초,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시 쓰기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글의 창작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며,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선, 이론과 창작의 연계 프로그램,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곽효화·인선주(2013)는 창의적인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 특히 시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라는 범주가 있으나 학습자가 시를 직접 써보는 창작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한편 문학치료적 접근으로 상담심리 분야에서 도구적 측면에서 시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김남희(2018)는 문학교육이 문학 경험을 매개로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적 기획이라고 보고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에 교육적 지원으로서 시 쓰기, 곧 문학치료적 접근으로서의 시 쓰기를 논의하고 있다.

정정순(2018)은 문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개인적 성장’이 문학 행위의 자기 교육적인 성격, 곧 자신에 대한 앎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담론적 실천으로서의 자화상 시 쓰기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문학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고유한 주체성을 발현하며 자기 삶을 풍요롭게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문학의 치료적인 관점과도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등 KSL 학습자들은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변화에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친숙한 문화와는 다른 사회에서 다문화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학이 주는 치유의 관점은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겠다. 문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더 성찰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내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어 개인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손예희(2005)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의 이해에 관한 연구이다. 국어교육에서 시 쓰기 교육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아직 한국어교육에서는 시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연구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국어교육에서는 시 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실태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시 쓰기 및 문학적인 글쓰기에 관한 관심이 아직 실제 교육 방안 연구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어교육에서는 윤여탁(2010), 오문석(2012), 주재환·윤보은(2015) 등의 연구와 같이 다문화의 문식성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의 활용에 대한 관점에서의 시 교육 방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어교육에서 실제로 학습자가 쓰기 영역에서 시를 쓰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등 KSL 학습자의 시 쓰기 교육 방안을 본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령기인 중등 KSL 학습자에게 시 쓰기 교육이 필요함과 그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지적인 능력의 발달만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발달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임을 상기하여 문학적인 글의 효용과 시 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시 쓰기 교육을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어교육의 쓰기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여 쓰기에서의 시 쓰기 교육 방안에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쓰기 교육과 시 쓰기 이론을 점검하는 데 있어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함께 문학과 국어과 교육 분야의 연구도 참고하여 검토한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중등 KSL 학습자의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 방안 수립을 위해 기존 연구를 검토하며 모색하는 것이다. 즉 관련 이론들을 점검함으로써 한국어교육 시 쓰기 교육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찾아 교육 방안에 활용하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시 쓰기를 교육할 때 필요한 관점의 이론을 정선하고 확장하여 중등 KSL 학습자의 한국어교육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국어 교육을 위한 시 쓰기 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1. 글쓰기의 의의

글을 쓰는 능력의 중요성은 현시대만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시험을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던 고려 시대(광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쓰기 교육 또는 작문 능력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얼마나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 왔다.

모든 교과에서, 지식을 서로 연결하고 조직하여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으로 구조화하여 글로 쓸 수 있는 작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교과적 작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작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목 외2001:220-221)

글을 쓰는 것은 일차적으로 독자가 읽을 것을 예상하며 글을 쓴다는 점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고, 독자의 관점이나 지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문학적인 글쓰기도 자기 내면의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글을 읽는 독자의 세계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때 우수한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의 글쓰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학생들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하고 탐색해야 한다. 글쓰기 능력을 습득하면서 학생들은 글의 대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게 된다.

글쓰기가 의사소통의 행위이기 때문에 글 쓰는 과정이 또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글을 쓰는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글의 목적과 조직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글을 읽을 독자를 예상하면서 글의 조직이나 전달 방식을 정하고 또 글을 쓰고 난 뒤에도 더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고치기도 한다.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도 신장시킨다.

글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증적인 연구들은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가졌던 학생이 체계적인 글쓰기 지도를 받은 후 사물과 세상에 관심을 지니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정희 2020: 343-345)

글쓰기는 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와 이해를 하게 이끄는 데 그로써 삶에 대한 이해도 확장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대상을 찰나에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을 거쳐 대상과 자신의 이해에 도달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표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 글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인식과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곧 삶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다.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이해력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2. 문학적 글쓰기의 효용과 문학치료적 관점

문학적인 글쓰기의 효용은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와 연결된다. 문학을 통해 다양한 삶 속에서 인간의 진실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작가가 쓴 작품이지만 그 속에 관통하고 있는 진실은 보편성을 띠어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이성적인 지식과 인식으로써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은 삶의 모습을 감정과 정서를 통해 느끼도록 보여준다.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독려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게 이끈다. 전인적인 사람으로서 이웃과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격과 품성을 기르게 한다.

문학은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준다.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한 이들은 자신도 삶에서 진실한 감동을 느낀 순간을 문학적 글로 써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심인 문학적인 글쓰기를 해보면서 문학 장르에 관련된 심미적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글을 읽는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글 쓰는 이는 자신의 생각, 정서를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전하게 된다. 문학적 글쓰기는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정서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시를 문학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견해는 주로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례들의 소개와 함께 활발히 거론되었다. 문학치료의 의미로 사용되는 “포이트리테라피(poetry therapy)는 포이에시스(poiesis), 즉 ‘글을 짓다, 만들다’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문학을 매개체로 사용하면서 참여자의 창조적 글쓰기의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다. 현재 넓

은 의미의 ‘문학’을 매체로 이루어지는 문학치료가 ‘포이트리테라피’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이봉희 2006:105)

문학치료의 목적은 개인의 변화이며 그로써 내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인간관계의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생생한 이미지나 생각, 느낌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도와주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긴장을 해소하게 도와준다. 문학을 통해 자유롭고 다양하고 유익한 미를 체험하며 삶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자아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 (이봉희 2006:106)

이렇게 문학치료의 구체적인 목적은 문학의 효용과 연관된다. 문학의 시적 요소들이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학치료에서는 문학을 매개로 치료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 쓰기는 작가가 내면의 정서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글로써 구체화하는 활동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활동이며 이것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시를 쓰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글 쓰는 이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문학치료적 관점에서는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을 주목하여 문학을 통하여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자아의 이해, 자신과 세계의 새로운 관점 등을 얻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학치료에서의 다루는 문학은 주로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가 문학 작품에 담긴 정서나 느낌, 생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는 보편적인 주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자가 문학 작

품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과 내적인 슬픔, 절망을 극복하는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경우 전체적인 어조나 주제가 부정적인 것은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렵거나 난해한 작품이 아니고 이해하기 쉬운 문학 작품을 택한다. 문학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 아니라 문학치료에 참가한 이들이 자신들의 내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에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함께 읽으며 문학치료적 활동을 한다.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시 쓰기는 자기 내면을 통찰하고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이었던 체험을 새롭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성숙한 태도로 자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문학에서 요구하는 분석적이고 인지적인 틀이 아니라, 마음의 심연을 건드리는 내용적인 부분을 중시한다.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시 쓰기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시로 표현하면서 자기 내면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에서는 사물을 객관화시키고 거리를 두면서 시적 감수성을 표현하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객관화하여 표현한다. 이때 감정을 정화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이끌 수 있게 된다.³⁾

또한 글쓰기 문학치료가 대학생의 불안 해소와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3) 김남희(2018), p75

“시 쓰기의 경우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을 환기하고 정화할 뿐 아니라, 심층적 내면세계의 탐구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감정을 지지하고 감정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정서 조절의 힘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 이해가 촉진 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을 완전히 노출하지 않고서도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전막과 같은 치료적 기능을 갖기도 한다. 시는 함축성을 본질로 하는 장르이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숨기고자 하는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발표(손정희2020:339-365)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본 연구의 대상인 중등 KSL 학습자의 시 쓰기 교육에도 시사점을 준다.

에릭슨(E.H.Erikson)⁴⁾은 인간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보았다. 자아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과업으로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자는 청소년기에 겪는 일반적인 혼란과 불안 외에 문화적인 갈등과 혼란으로 인한 정체감 혼란까지 겪으며 그들에게는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과도 관련된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원래 언어와 다르거나 부모의 언어와 다른 한국어와 한국 문화 속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학습의 어려움, 그로 인한 학업 성취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혼란,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이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도 시 쓰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문학적인 글쓰기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불안을 줄이고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문학치료적 관점에서의 시 쓰기는 심리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 정서를 강화한다. 자아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소통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목표와

4) 에릭슨(E.H.Erikson)(1902.6.15~1994.5.12) - 독일 출생, 아동정신분석학자,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주장.(유승희 외(2016), 상담학 사전 참조)

닿아있다. 이런 점에서 문학치료적 관점은 중등 KSL 학습자들이 문학적
인 글인 시 쓰기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해주며 시 쓰기 교
육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외국어 교육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의 필요성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언어 학습의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교육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목표어 언어의 기능을
갖추도록,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하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활동을 제시한다.

시 쓰기는 쓰기 영역의 활동이 되겠지만 실제로 시 쓰기가 학교 교육에
서 체계적으로 쓰기 영역의 활동으로 교육되고 있지는 않다. 국어교육의
경우, 시 쓰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시 쓰기는 학
생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에 시 쓰기와 관련된 체계적
인 교육 활동의 필요성과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해서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교육에서는 시에 대한 교육이 시의 이론적 요소
와 비유적 표현 등에 대한 지식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문학의 생성이라
는 측면에서 시 창작을 제시하지만,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체계적인 시
쓰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적 논의 역시 지속해서 있
었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다른 관점의 제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 쓰기를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자기표현의 목적을 지닌 글로서, 쓰기 교육에서 교육하는 방안의 제시이다. (정정순 2007:252)

본고는 시 쓰기를 쓰기 영역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관점에 견해를 같이 한다. 이제까지 시 쓰기는 문학교육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시 쓰기는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 쓰기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이 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시 쓰기를 하면 한국어의 사용 능력이 향상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 네 가지 영역, 곧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각 내용 체계에 따라 교육한다. 그렇다면 시 쓰기 교육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쓰기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인지적인 정보의 전달과 이해라는 측면만을 생각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인 부분은 실제 삶에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상황에서의 감정, 정서, 입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등 다른 요인들이 전달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 쓰기는 감정과 정서를 문학적 장르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 이런 점에서 시 쓰기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를 씀으로써 자신과 세계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관찰하게 된다. 자신의 체험에서 맞닥뜨린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시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써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된 순간에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를 쓴 이는 자신의 체험 속에서 시를 썼지만, 그 속의 정서와 감정은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진실한 감동을 전한다. 시를 쓰는 이는 시를 씀으로써 자기의 정서와 감정, 생각을 전하고 독자는 이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하게 된다.

시 쓰기는 먼저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다. 시를 쓰기 전에 먼저 시를 읽고 감동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시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를 쓰게 된다. 이때 시를 쓰면서, 한국어의 단어 자체나 기본 문형만이 아니라 시로 표현하는 한국인의 정서와 생각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KSL 학습자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시 쓰기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다.

한국어교육을 기능적이고 인지적인 부분에서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삶에서의 생각과 감정을 정서적인 면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시 쓰기를 통해 키울 수 있다.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 교육을 함으로써 KSL 학습자의 정서적인 부분의 의사소통 능력이 커지고 한국어 사용 능력이 커진다.

그리고 시 쓰기를 문학에 중점을 두고 접근할 때 문학 이론은 시에 대해 문인들의 관점에서 분석, 비평하며 해석과 감상의 틀을 제시한다. 이론과 해석은 시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것일지라도 작가가 특별한 시대에 특수한 신분으로 살았다면 그 시의 해석과 감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종교나 철학의 배경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윤여탁 1996:113-131) 작가론, 작품론, 문학사 등의 이론들은 시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교육에서 지향하는 것과 거리를 만들어 대부분 학습자에게 시는 다가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있게 된다.⁵⁾

그러나 모든 학습자가 시인이 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 필요는 없다. 학습자가 학교에서 문학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교육받고 삶에서 시를 즐겨 읽고 자신도 시를 써보고 시를 통해 유익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교육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 교육은 지식적인 면에서 이해 능력의 측면보다 삶에서 즐겨 시를 읽고 실제로 시를 쓰면서 시가 주는 문학적 효용으로써 결국 따뜻한 인간성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측면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 쓰기는 문학교육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영역에서 실제 즐겨 쓸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으로서의 시 쓰기를 말할 때 내포하고 있는 과도한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에서 오는 부작용은,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를 써보고 싶은 욕구를 꺾어버린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글을 읽고 글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글을 끄적여 보고 써보고, 그리고 시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이렇게 표현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시 쓰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문학이 요구하는 시 쓰기 교육은 걸음마를 익혀야 할 아이에게 마라톤을 요구하는 격이다. 문학교육에서처럼 시 쓰기를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훌륭한 작품 창작으로 접근할 때, 시 쓰기는 많은 학생의 삶에서 자신

5) 윤여탁(1996), p113-131

“시는 낯설거나 어렵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이 어렵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경우이다. 쉽게 접근하여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모든 수용자에 권하고 싶다. 특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는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우수하고 능동적인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의 교육과 감상은 평범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p123)

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글쓰기를 한국어교육 쓰기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시 쓰기 역시 정서적이고 문학적인 글을 써본다는 점에서 쓰기 영역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 작품을 쓰도록 은연중에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문인이 아닌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한 학습자들을 위해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시 쓰기 교육이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아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정서와 감정으로까지 확장된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우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쓰기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의 글, 정서 표현의 글 등 다양한 글을 쓰는데, 이 중 정서 표현의 글을 시로 표현할 수 있다. 정서 표현의 글을 산문으로 쓸 수 있지만, 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시에서 요구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쓸 수 있다.

시 쓰기는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의 하나로 문학적 글쓰기에 포함될 수 있다. 문학적 글쓰기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쓰기 교육이 아닌, 자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위한 글쓰기이다. (정정순 2007:252)⁶⁾ 시 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 시를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되며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 한다. 시를 쓰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시적 감수성으로 표현하며 객관화가 된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게 된다.

쓰기 영역에서의 문학적 글쓰기 역시 창의성,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된다. 문학적 표현방식은 문학적인 글의 특색을 보여준다. 문학적인 글의 표현방식은 글 쓰는 이의 체험, 감각적 인식과 관련되므로 다른 사람과 다

6) 정정순(2007).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내용 설정론」.

를 수 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것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창의성과 관련된다. 이때 시 쓰기를 문학적 기교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정서를 꾸밈없이 잘 전할 수 있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현방식 자체나 기교에만 중점을 둔다면, 창의적인 자기표현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는 글의 의미가 사라지고, 잘 알려진 유명한 시의 모방과 기교의 암기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 쓰기 교육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자신의 표현으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한다.

쓰기 영역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 글 중 하나의 글쓰기로 시 쓰기를 함으로써, 자기표현을 통한 이해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글을 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KSL 학습자들의 시 쓰기는 쓰기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생활에서 실용적인 목적의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성찰과 인식과 위안을 얻기 위해 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 전체 학생들이 익히고 스스로 즐길 수 있게 음악과 미술의 기본 소양이 수업 시간에 교육되고 있다. 이처럼 시 역시 전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학생들의 삶에서 즐겨 쓸 수 있는 표현의 글로서, 쓰기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교육에서 문학적 완성도를 강조하는 창작으로서 시 쓰기 교육을 배제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 창작의 완성도를 더 강조하는 시 쓰기 교육은 교육의 상위 단계에서, 또는 문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해 심화 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중등 KSL 학습자에게 교육적 의미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 쓰기 교육이 쓰기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중등 한국어 교육과정(KSL) 학습자에게 시 쓰기 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지만 실제 학교 생활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한국어 사용으로 언어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시기로 자신과 사회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끼며 학업 성취와 한국 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내면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등 KSL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목적의 글을 써보는 쓰기의 수업에서 시 쓰기 교육을 하면 자주 시를 써보는 것이 가능하고, 또 훌륭한 작품으로서 시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표현 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기교가 아닌, 진솔하고 적절한 언어표현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한국어 사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한국어교육에도 동기부여되며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Ⅲ. 중등 KSL 학습자 대상 시 쓰기 교육의 원리와 실제

1.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내용 체계 및 쓰기 성취 기준

한국어교육은 국력의 신장, 한류 문화의 확대,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해 왔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학습 변인을 고려한 표준교육과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교육 현장에 활용되어 왔고, 2012년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국내 초·중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7년에는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되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학령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다문화 배경을 지니고 학교 교육을 받는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KSL)을 가리키겠다.

2017 한국어교육과정(KSL)(교육부2017)에는 한국어 과목의 학습 대상과 한국어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즉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

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 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 출신 부 또는 모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에 영향을 받은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과정을 거쳐 입국한 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가 주류 언어인 한국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행위를 가리킨다.”

한국어 교육과정(KSL)이 외국 성인의 한국어 교육과 다른 점으로 “일반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학령기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과 각 교과의 학습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까지 함께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원래 문화와 한국의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줄이고 자신의 원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7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어’의 교수 학습 내용은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생활 한국어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학습 한국어 교육’은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이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과 각 교과 학습에 진입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는 ‘교과 적응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로 각 교육 영역의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완성되어 나가도록 체계화하였다.

<표1 한국어 교육과정(2017) 내용 체계>

		생활 한국어교육	학습 한국어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 - 말하기 - 읽기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 소통 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문법	학력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한국어 교육과정의 학습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이다.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언어 사용 능력의 부족, 학업 수행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는다.

위의 표에서 보듯 학습자에게 생활 한국어교육만이 아니라 학습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학습 한국어교육은, 학습 도구의 한국어와 교과 적용 한국어로 나누어 교과의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학업 성취가 매우 중요하다. 학업은 배우는 지식의 양이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아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중도 입국이나 다문화 배경의 환경 등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경우는 더욱더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의 학습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학습자들이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교과에서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KSL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KSL은 숙달도 중심의 구성 원리를 등급별로 제시하는데, 구성 범주에 따른 구성 요소를 각각 초, 중, 고급의 등급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등급에 2단계씩 두어 1~6단계로 나누어 언어 기능에 따라 단계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의는 쓰기에 관련된 시 쓰기 교육이기 때문에 쓰기 성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쓰기의 성취 기준을 볼 때 1~3단계는 글자의 자모나 어휘,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4단계에서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친숙한 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읽고 요약하여 쓸 수 있다’와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쓰기 교

육은 4단계의 학습자에서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3단계는 기초적인 쓰기와 쉬운 문장 수준의 쓰기를 익히는 단계인데, 이들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쓰기 능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쓰기의 단계상 기본적인 글자나 단어, 쉬운 문장을 쓰는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학습자가 내면의 것을 시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단계부터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쓰기 교육을 하면서 한국어의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쓰기 중 4~6단계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2 쓰기 성취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단 계	1. 하루 일과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다. 2. 친숙한 주제의 짧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쓸 수 있다. 3.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 사고 도구 어휘와 범용 지식 어휘를 사용하여 문단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1.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2. 친숙한 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읽고 요약하여 쓸 수 있다. 3. 자신과 가족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 사고 도구 어휘와 범용 지식 어휘를 사용하여 한 두 문단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1.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2.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많은 글을 읽고 요약하여 쓸 수 있다. 3. 주변의 친숙한 인물이나 사물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 사고 도구 어휘와 범용 지식 어휘를 사용하여 한 두 문단 수준의 글을 매끄럽게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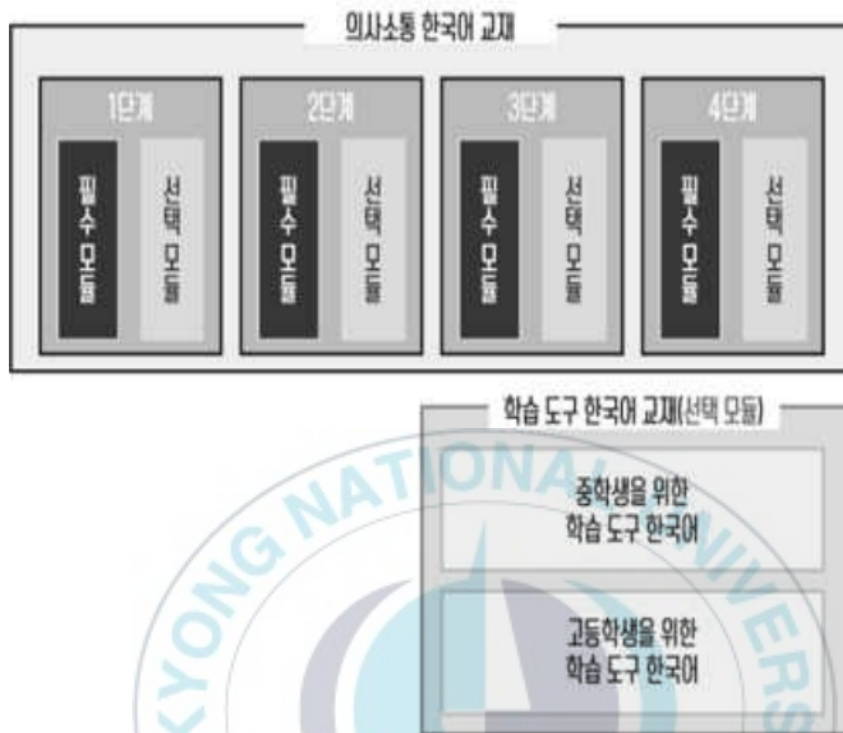
5 단 계	1.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2. 책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글로 쓸 수 있다. 3.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4.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비교·대조하는 수준의 글을 간단히 쓸 수 있다.	1.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책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글로 쓸 수 있다. 3.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두 문단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4.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비교·대조하는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1.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책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글로 쓸 수 있다. 3.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을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다. 4.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비교·대조하는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6 단 계	1. 시작, 중간, 끝의 구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2.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3. 쟁점이 드러나는 글을 읽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 교과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시작, 중간, 끝의 구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2.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3. 쟁점이 드러나는 글을 읽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시작, 중간, 끝의 구성을 갖춘 완결된 형식의 글을 쓸 수 있다. 2.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3. 쟁점이 드러나는 글을 읽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 학습 내용을 자신의 말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교재의 구성과 쓰기 교수요목

한국어교육에서 2017 한국어 교육과정(KSL)에 따른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고 2019년 국립국어원 기획으로 초,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가 각각 출간되었다. 그 중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쓰기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 보고서인 ‘2018년 중고등 한국어(KSL) 교재 개발’(국립국어원2018)에서 한국어(KSL) 교재 모듈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네 단계를 1년으로 하는 교재 모듈을 구성함
- 한 단계는 7~8단원 분량으로, 한 단원에는 각각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이 존재함
- ‘필수 모듈’에는 ‘어휘, 문법, 대화문, 어휘 및 문법 활동(말하기 중심)’이 포함되며, ‘선택 모듈’에는 ‘일상생활 및 학교 생활이 주제가 되는 네 가지 의사소통 활동’과 ‘학습 도구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이 활용된 네 가지 의사소통(통합형) 활동’이 포함됨”



[그림1 중·고등학교 한국어(KSL) 교재 모듈화]

또한 교재 개발 연구에서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개념 및 범위를 재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단계별 운영을 밝히고 있다

“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가 수준별, 단계별로 적절하게 비중을 달리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적시함. 즉, 초급(1~2단계)에서는 이른바 생활 한국어인 ‘의사소통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중급(3~4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함께 학습 한국어 중 ‘학습 도구 한국어’를 병행 교육하며, 고급(5~6단계)에서는 학습 한국어인

‘교과 적용 한국어’를 집중 교육할 것을 제안함”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를 아래의 논의에서 교재라는 말로 지칭하고자 한다. 개발 연구에 따라 교재는 의사소통 1~4 의,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습자 중심의 자율 선택형 모듈화 교육에 발맞추어, 학습자와 교육 현장의 개별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별 교육 현장 적합형 모듈 교재’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교재의 각 단원에서 필수 모듈은 ‘꼭 배워요’ 영역에, 선택 모듈은 ‘더 배워요’ 영역에 구현되어 있다.

교재 의사소통 1~4의 교수요목을 살펴보면 단원별로 필수 모듈인 ‘꼭 배워요’와 선택 모듈인 ‘더 배워요’로 나누어져 있고, 쓰기 영역은 ‘더 배워요’ 부분에 교수요목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예시로 든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심혜령 외 저·국립국어원 기획 2019)의 교수요목이다.

<표3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1 교수요목>

단 원	주제	꼭 배워요		더 배워요				
		어휘	문법	대화	부가 문법	읽기	쓰기	문화
1	등하교	자기소개 관련 어휘 숫자	-이에요 은 이 야 이 아니다	인사하기 자기소개 하 기	입니다 아(호격)	학생증 읽 기	자기소개 쓰기	한국의 인 사 예절을 알아보 다
2	사물	물건 관련 어휘 위치 관련 어휘	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의 하고	물건 유무 묻고 답하기 물건 위치 묻고 답하기	도	메모 읽기	메모 쓰기	한국 중 ·고등학 생의 필수 품을 엿 보다
3	장소	장소 관련 어휘 동작 동사(1)	-어(요) 을 에 가다/오 다 에서	현재 행 위 표현 하기 이동 장 소 묻고 답하기	-니? -어 (명령)	문자 메시지 읽기	문자 메시지 쓰기	한국 중· 고등학 생의 놀 이 문화 를 맛 보다
4	일상	동작 동사 (2) 교통수단 관련 어휘	-았- 에 (시간) -으러 으로(수단)	과거 행 위 표현하기 교통수단 묻고 답하기	부터 까지 과	일기 읽기	일기 쓰기	한국의 대중 교 통을 알아 보다

5	수업 준비	수업 준비 관련 어휘 고유어 수	-을 거예요/ 거야(미래) -으세요 -고(나열) -으면	미래 행위 표현하 기 일정 묻고 답하기	한테 -지 말다 으로 (방향)	도서관 이 용 안내문	일주일 계 획 쓰기	한 국 인 의 공부 문화 를 엿보다
6	경제 활동	물건 구매 관련 어휘 형용사 (1)	-고 싶다 -지 않다. 보다 -어 주다	원하는 물건 에 대해 문 고 답하기 물건 구매하기	요 (조사) -고요	영수증 읽 기	구매 목록 쓰기	한국의 화 폐를 만나 다
7	음식	음식 관련 어휘 형용사(2)	-을까(요) (제안) -지만 -어서(이 유) -을 수 있다/없 다	음식 제 안하 고 주문하기 행동의 이유 표 현하기	-겠-(추측) 이랑	식당 소개 글 읽기	식당 소개 글 쓰기	한국의 음 식을 맛보다
8	생활 지도	생활 지도 관련 어휘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면 안 되 다 -으면서	의무 표현하 기 행위 금지하기	-겠-(의지) -습니다 -으면 되다	교 실 규 칙 안 내 문 읽 기	교 실 규 칙 안 내 문 쓰 기	한국 중 · 고 등 학교 의 생활 문화를 들여다보 다

교재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4, 네 권에서 쓰기의 교수요목만을 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쓰기 교수요목>

	단 원	주제	쓰기		단 원	주제	쓰기
의 사 소 통 1	1	등하교	자기 소개 쓰기	의 사 소 통 3	1	의사 결정	회장 선거 포스터 쓰기
	2	사물	메모 쓰기		2	환경 미화	학급신문 쓰기
	3	장소	문자 메시지 쓰기		3	과제	학교 소개 쓰기
	4	일상	<u>일기 쓰기</u>		4	또래 모임	수필 쓰기
	5	수업 준비	일주일 계획 쓰기		5	독서	독서 감상문 쓰기
	6	경제 활동	구매 목록 쓰기		6	소통	인터넷신문 기사 쓰기
	7	음식	식당 소개글 쓰기		7	여행	기행문 쓰기
	8	생활 지도	교실 규칙 안내문 쓰기		8	생활체 육	체조 동작 묘사하 여 쓰기
	1	관계 형성	친구의 생일 파티 에 다녀와서 문자 메세지 보내기		1	공부 (학습)	시험 준비 계획 세우 기
	2	시험	시험 계획 공부 쓰기		2	안전·보건	재난 상황에서 필 요한 물건 쓰기

의사소통 2	3	계절별 학사 일정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 글쓰기	의사소통 4	3	고민 상담	자신만의 고민에 대해 쓰고,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기
	4	교내 활동	동아리 가입 신청서 쓰기		4	실습·실기	좋아하는 음식 소개하기
	5	취미 및 여가 관련 어휘	추천하고 싶은 취미활동에 대해 쓰기		5	대회 참가	자신에게 개최하고 싶은 대회 포스터 만들기
	6	기념일	휴일에 한 일 쓰기		6	적성 탐색	미래의 자신과 인터뷰하기
	7	장래 희망	자신의 직업 카드 만들기		7	봉사 활동	봉사 활동 신문 기사 완성하기
	8	교내 돌발 상황	보건실 이용 신청서 쓰기		8	진로 상담	미래 선호 직업을 예측하고 나의 꿈 이야기하기

3. 중등 KSL 쓰기 영역 글쓰기로서의 시 쓰기

한국어 교육과정(KSL) 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글은 위의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실용적인 글이고, 문학적 글쓰기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 3에서 제시된 수필 쓰기, 독서감상문 쓰기와 기행문 쓰기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2에서 일기 쓰기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과 느

낌을 표현하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문학적인 글쓰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인 글쓰기 활동 가운데 시 쓰기는 들어있지 않다.

수필은 문학적인 글로서 형식이 자유롭고 생활에서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다. 독서감상문과 기행문은 각각 책을 읽은 후의 느낌과 감상,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과 생각을 쓰는 것이고 일기는 생활 속에서의 체험과 느낌, 생각을 쓰는 글이다. 이들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수필처럼 자유롭게 내용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글이다. 이러한 글들은 한국어교육(KSL)의 쓰기의 교수요목에 나타나고 쓰기 활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시 쓰기는 쓰기의 교수요목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수필이나 독서감상문, 기행문이 형식 면에서 비교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산문으로, 쉽게 쓸 수 있음에 반해, 시는 장르와 형식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하는 점에서 쓰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는 장르적 특징이 뚜렷한 점과 학습자의 시 쓰기에서도 은연중에 문학 작품의 완성도를 따지는 평가적 시선 때문에 다른 문학적인 글쓰기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각각 글의 목적과 형식, 서술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 쓰기도 장르가 지닌 기본적인 특징과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해야 하는 수준이, 어려운 문학적 지식수준이 아니라, 시로 표현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 쓰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시 쓰기에서 알아야 할 지식은 문학 창작에서의 완성도를 따지는 비평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글쓰기의 하나로써의 시 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 쓰기

는 넓은 의미에서 글쓰기에 고려해야 할 점을 공통으로 같이 가진다. 이
점에서도 쓰기에서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중등 KSL 학습자를 위한 시 쓰기 교육 설계

1. 시 쓰기 교육의 목표

KSL 학습자 중에서 중고등학생 학습자의 실제 시 쓰기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글에서 학습자, 학생, KSL 학습자로 다양하게 지칭되는 대상이 KSL 학습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KSL 학습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의 시 쓰기 수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때 시 쓰기가 문학이 주는 효능으로 인해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중등 KSL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들로부터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 교육 연구가 시작되는 것을 택했다.

시 쓰기 교육의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교육 목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중등 KSL 학습자의 시 쓰기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한국어로 시를 쓰는 경험을 해본다.

- 체험에서 우리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로써 표현할 수 있다.
- 시 쓰기를 통해 사물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삶에 대해 성찰하며 감동을 표현할 수 있다.
- 시 쓰기를 통해 시를 듣는 이나 독자와 감정과 생각을 나누며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운다.
- 감정과 생각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한국어에 관해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 학습에 동기를 얻는다.
- 마음과 정신에 힘을 얻고 삶에 대해 진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시가 문인들이 창작하는 문학 작품에서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대상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면에서 학습자의 시 쓰기는 쓰기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생활에서 실용적인 목적의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성찰과 깨달음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도 쓰기 영역에서 시를 쓸 수 있도록 시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 전체 학습자들이 익히고 스스로 즐길 수 있게 수업 시간에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전문적인 음악가, 미술가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비평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음악과 미술을 즐기고 자신의 것을 표현해보는 것을 통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능과 흥미가 있어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시 쓰기 교육 역시 전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학생들의 삶에서 즐겨 쓸 수 있는 표현의 글쓰기로서, 쓰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시 쓰기 지도 원리

쓰기에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좋은 글이란 먼저 글의 목적에 맞게 쓴 글이고, 읽는 사람이 어려워하지 않고 잘 이해해서 글의 목적에 따른 반응을 하게 하는 글이다. 시 쓰기 교육 역시 좋은 시를 쓰게 지도해야 한다. 중등 KSL 학습자의 쓰기 교육에서 시 쓰기 수업을 할 때 어떤 시를 좋은 시라고 가르쳐야 할까?

시 쓰기 교육에서 지도해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 체험에서 우리나라 내용을 솔직하게 자신의 표현으로 쓰게 한다.

시는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진솔한 자기표현의 글이다. 체험으로 느낀 것을 시로 표현할 때 시적인 정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다. 단지 문학적인 표현과 기교만 생각해서 시를 쓴다면 알맹이 없는 껍질만 있게 된다. 시 쓰기 교육에서 자기 삶에서 체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신의 체험에서 만난 진실한 감동의 순간을 솔직하게 쓰는 것, 보고 느낀 것을 쓰고 진실의 순간에 깨달은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꾸밈없이 쓰는 것이 시 쓰기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라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어른들의 시를 흉내 내고 표현법과 기교의 사용만을 중요하게 여겨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기 삶에서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오덕2010:45)

- 자연과 사물에 대한 탐색과 진실한 관점을 표현하게 한다.

시를 쓸 때 자기 삶과 체험에서 우러나온 감동적인 순간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감동의 순간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삶에서 자연과 사물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태도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실을 깨닫고자 하는 자세가 밑받침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진실하고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솔직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야 한다. 시가 갑자기 글로써만 좋게 써질 수 없고 삶의 태도에서 시의 바탕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삶에서 진실한 면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시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한다.

훌륭한 창작 작품으로서의 시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먼저

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게 한다. 자신에게 감동을 준 체험과 인식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쓰게 한다. 자신이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인지 시상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게 한다. 그리고 그 언어사용이 적절한지, 언어표현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정서를 느끼게 하고, 또 한국인이 그것에 공감하고 이해하겠는지 시를 쓰면서 점검하게 한다.

이것은 감정과 정서의 원활한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관련되어 중요하다. 시 쓰기가 쓰기 활동으로서 중등 KSL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표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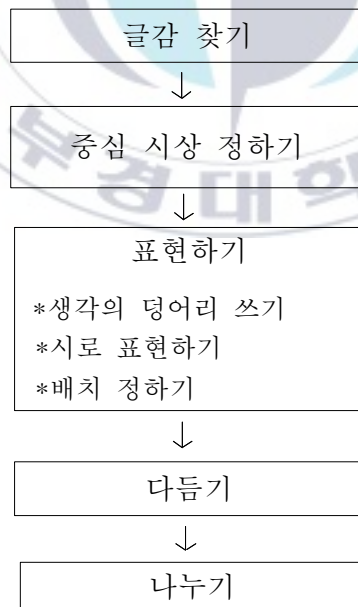
-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과 나누기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시 쓰기에 반영하게 한다.

모둠별 활동은 학습자들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게 하며 학습 의욕을 고취한다. 자신이 쓴 시를 모둠에서 발표하고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통해 인식과 사고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시상의 전개와 표현에 피드백을 받아 시를 개선할 수 있다. 혼자 시를 쓰면서 문제에 부딪힌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교사나 전문적인 시인의 지도에서 받는 피드백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과 같은 학습자 수준인 친구들의 피드백으로 시를 실제적이고 다가가기 쉬운 글로 인식하게

되는 점,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학습에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갖게 되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고자 의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과 나누기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 쓰기의 단계

시 쓰기의 단계는 시를 쓰는 과정과 절차를 생각하여 정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시 쓰기에서의 단계를 글감 찾기, 중심 시상 정하기, 표현하기, 다듬기, 나누기의 과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2 시 쓰기 단계]

가. 글감 찾기

글감이란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를 뜻한다. 비슷한 말로 ‘글거리, 소재’가 쓰이기도 한다. 글감 찾기는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는 단계이다. 진실한 감정과 생각을 느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며 글감을 모은다. 시를 쓸 때 먼저 말하고 싶은 무언가를 마음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 시로써 말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본다.

시로 표현해 볼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그 장면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다.

- 시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없을 경우는 시로 쓰고 싶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주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나 장면들에 관해 종이에 써보면서 생각을 넓혀본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사고 작용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글감을 찾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박영목 외2008:248)

글감을 찾을 때는 자신의 마음,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시로써 말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하는 말이나 배워서 아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한 것을 체험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 느낌과 감동을 생각해 보게 한다. 진실을 각성하게 된 순간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과 생각을 시로 표현할 수 있다.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은 시가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 이때 시는 진실과 감동을 전하게 된다. 그

리므로 시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글감을 자기 삶의 체험에서 찾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나. 중심 시상 정하기

흔히 글에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생각을 여기에서는 중심 시상이라는 말로 적는다. ‘주제’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또는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은 ‘주제’가 인간의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중 이성(理性)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시 쓰기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는 시에서의 감정과 느낌, 정서, 생각 등을 폭넓게 뜻하는 점에서 ‘시상’(詩想)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중심 시상 정하기는 앞의 글감 찾기 단계에서 마음속에 떠오른 것 중에서 시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여 정하는 단계이다. 한 편의 시에서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글의 구성원리 중 하나가 통일성이다. 글 전체의 주제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종속적인 주제로 글을 구성할 때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박영목 외2008:255) 시 역시 표현되는 내용과 장면들이 하나의 중심 시상으로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 글감 중에서 중심 시상이 정해지면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도 글감에서 추려지고 정해질 수 있다.

다. 표현하기

시로 쓰고자 하는 글감을 찾은 후 시를 쓰는 단계이다. 실용적인 글쓰기와는 다르게 시를 쓴다고 할 때 작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실용적인 글쓰기는 각각 글의 목적에 따라 전달하려는 정보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주력하거나 한다.

반면 시를 쓸 때는 실용적인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시를 통해 정서와 감정을 전하고 시적 감흥과 감동을 일깨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성(理性)과 함께 감성(感性), 마음, 깊은 정신의 영역까지 활용하고자 한다. 내면의 것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이 모든 영역을 잘 활용하려고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시적이라 여겨질 수 있도록 문장을 생각하면서 쓰고, 시의 구조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하며 쓰게 된다. 정서와 감정,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잘 전하기 위해 표현을 생각하고 시에서의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생각의 흐름에 휴지를 주기 위해서나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시간의 여백을 주기 위해서 연이나 행의 구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장르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감정, 주제 등을 표현하게 된다. 적절한 시어를 선택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하며 시를 써 내려가는 것이 이 단계이다.

시로 표현한다는 것이 학습자들에게는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작게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생각의 덩어리 쓰기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의 덩어리를 글로 적어본다. 여기서 ‘생각의 덩어리’

리'라 함은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감정, 생각, 마음까지 모두 포괄한다. 마음에 떠올랐던 장면들을 개략적으로 써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는 시의 특성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써보는 것에 집중한다. 일단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기에 충분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본 장면들이 몇 개가 된다면 시에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장면들을 추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의 부분들 역시 시 전체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 시로 표현하기

생각의 덩어리로 대략 글을 써보았다면 그 글을 시로 표현한다. 시적인 감정과 시상의 느낌을 잘 전하기 위해 시어를 선택하고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쓰는 단계이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시에 담아내기 위해 가장 알맞고 적절한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쓰게 된다. 설명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시 쓰기에 집중한다. 이때 시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시상을 배치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한다.

- 배치 정하기

일반적인 글쓰기 교육에서는 글쓰기의 단계에서 글감을 찾은 후에 글의 구조를 생각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처음-중간-끝'이라는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을 배치한다.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나 설득을 위한 글의 경우 실용적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글의 목적에 맞게,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 먼저 구조를 정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반면, 시는 시적 감흥에 따라 시를 쓰면서 내용이 형상화되는 부분이 있다. 시는 시상이 형상화되고 정서와 생각이 함께 전달되어 시적 감흥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형상화되는 시상을 보고 시의 흐름을 생각하며, 어떤 장면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또는 내용을 행 또는 연으로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이어서 연결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리 목적에 따라 개요를 쓰며 구조를 먼저 정하는 글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즉, 시에서는 시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며 글을 쓰게 되고 표현된 내용을 보며 배치를 고려하게 된다. 이때 효과적인 정서 전달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연결 또는 강조, 전환 등을 생각하며 시상을 배치하게 된다. 다른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구조 자체를 미리 계획하고 개요를 잡고 시작하지만, 시에서는 시를 쓰면서 구현되는 내용을 보며 시상의 흐름이 이어져 내용을 쓰게 되므로 글을 쓰는 동시에 배치를 고려하거나 부분적으로 시를 쓴 후 배치를 고려하게 되는 면이 있다. 이 때문에 표현하기 단계의 내용 중에 ‘배치 정하기’를 넣었다.

라. 다듬기

글쓰기에서는 글을 쓴 후에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다듬기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을 평가해서 수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글의 표현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독자를 생각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글의 목적에 부합하게 글을 고쳐 쓰는 것도 포함된다.

사실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글 쓰는 절차의 단계에서 하는 일들은 고정되고 분리된 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내용을 선정하면서 내용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내용을 조직하거나 계획하기 단계의 사항으로 돌아가 계획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박영목 외2008:260)

본고에서는 편의상 시 쓰기 단계를 순차적으로 표시했지만, 글쓰기의 절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일어난다는 견해와 관점을 같이한다. 다른 글의 작문 과정처럼 시 역시 쓴 내용을 다시 읽으며 더 잘 표현되었는지 고려하며 수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내용과 표현을 더 숙고해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에 대해서 문학적인 기법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런 관점에서 시를 다듬으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하거나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기법이나 형식, 내용을 따르려고 할 수도 있다.

반면, 시를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흥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더욱 내면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게 된다.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와 감정, 생각이 잘 전달되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본 연구는 중등 KSL 학습자에게 쓰기로서 시 쓰기를 교육하는 방안으로서 시에 대하여 후자의 관점에서 다듬기를 제시한다. 즉 다듬기의 단계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감정과 정서들이 시에서 잘 알 수 있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 중심 시상이 시의 다른 부분과 잘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삶에

서의 체험이 진솔하게 잘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내용을 고치고 다듬는다.

<표5 다듬기 단계의 확인 사항>

다듬기 단계의 주안점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의 내용이 하나의 중심 시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가를 고려함.
확인하는 질문	*자기 삶의 체험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의 주제를 잘 전하고 있는가? *시에서 화자의 어조가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내용이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불필요한 표현은 없는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인가?

마. 나누기

시를 쓴 이후에 반 전체나 모둠별로 나누기의 과정을 갖는다. 돌아가며 자신의 시를 발표하고 동료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며, 감상과 조언을 듣는 나누기 단계를 통해 자기 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끄는 모둠별 활동이 수업의 효과를 증진하는 경우가 많다. 시 쓰기 교육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모듈별로 시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시에 더 흥미를 느끼고 시 쓰기에 참여할 수 있다. 나누기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동료 친구들에게서 얻은 피드백을 참고하여 시를 수정하여 완성할 수 있다.

중등 KSL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나누기의 과정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동료 학습자들의 질문이나 감상이 시의 내용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목표어인 한국어 자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로서 가지게 되는 한국어에 대한 숙고와 관심, 배움이 시를 통해 나누어지면서 긍정적인 정서 강화와 더불어 목표어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일으킬 것이다.

작문에서 쓰기의 단계를 사고 과정과 관련해서 말할 때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 조정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하기는 필자가 글 쓰는 단계를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이전 단계나 계획하기 단계 등으로 옮겨가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사고 과정으로서 쓰기의 단계를 논의할 때는 이들 단계가 고정된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는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난다. 시 쓰기도 쓰기라는 점에서, 사고 과정으로서 쓰기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다.

시 쓰기의 단계에서 나누기 단계는 시를 쓴 후 동료 학습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시에 다시 반영하게 이끈다. 나누기 단계는 사고 과정으로 쓰기 단계인 ‘조정하기’와 연관된다. 시 쓰기 교육에서도 시 쓰기 단계를 편의상 순차적으로 제시하지만 언제든지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 조정하기의 단계를 자유롭게 옮겨가며 시에 대해 구상하고, 표현하고 다듬을 수 있다.

<표6 시 쓰기의 단계 주안점>

글감 찾기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음 *진실한 감정과 생각을 가졌던 순간들을 생각해 봄 *마음에 남아 있는 기억을 찾아봄
중심 시상 정하기		*글감으로 모은 것 중에서 시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 곧 중심 시상을 정함 *중심 시상과 관련하여 통일성을 보여주는 글감들도 선택하여 시에서 쓸 것을 정해 놓음.
표현하기	생각의 덩어리 쓰기	*중심 시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함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상적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 인상, 생각을 써봄 *시로 표현한다는 생각 없이 글을 간단하게 쓰거나 길게 이어진 문장으로도 써봄
	시로 표현하기	*생각의 덩어리로 쓴 글을 시로 씀 *시상의 느낌을 잘 전하기 위해 시어를 선택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음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시의 감흥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함
	배치 정하기	*시를 쓰면서 시적 감흥에 따라 시상의 배열을 생각함 *시상의 자연스러운 연결, 강조, 전환 등을 생각함 *시를 쓰고 난 후에도 시상의 전개를 생각하여 배치할 수 있음
다듬기		*시를 쓴 후 읽어 보며 고치고 수정함 *내용과 전개, 표현 등 모든 부분에서 시를 고치고 다듬을 수 있음

	*시상을 잘 표현하고 느낌과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되는지 확인하며 수정할 수 있음
나누기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자신이 쓴 시를 발표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함 *시에 대한 감상과 느낌을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 *시 쓰기에 대한 관심과 시를 쓰고자 하는 욕구,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일으킴

4. 수업에서의 시의 주요 개념과 교재의 선정

시 쓰기 교육에서도 시의 장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 가르친다. 시 쓰기는 먼저 시를 읽은 적이 있고 시를 이해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표현 행위이다. 시 쓰기는 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 이해 및 감상 교육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시 교육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현대시 이론에서 시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본고의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쓰기 영역에서 시를 쓸 때 문학 작품의 완성도를 요구하지 않고자 한

다. 자신의 체험과 느낌, 생각을 솔직하게 시로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쓰고자 하는 시상을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의 요소를 이해시킨다. 기교나 어려운 표현 기법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르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시를 써보는 체험을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 쓰기에서 가르칠 개념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에 한정하겠다. 시의 교육에서는 되도록 실제로 좋은 시들을 읽고 감동을 서로 나누면서 시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 시적 화자, 운율, 은유는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시 교육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현대시 이론에서 이들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다.

가. 시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

(1) 이미지

시에서 이미지는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고, 나아가 창작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논의된다. 시인의 내면적이고 심미적인 체험이 한 편의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를 텍스트에 구현하는 것을 이미지화라는 개념으로 말할 때 창작 주체는 이미지화를 통해 세계를 텍스트로 끌어들인다. 이미지화는 지각

행위이며 한 지각 행위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기억에 남아 있고 현재 경험 역시 과거의 것과 함께 저장되고 화합되어 미래 지각 표상에 관계된다. 이미지화는 자기 내면을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창작 주체의 이미지화는 내면에서의 일을 표현해내는 것이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창작 주체가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시에서 표현되고,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독자 역시 자기 삶의 체험과 연합시키며 소통하게 된다. (유영희2003:127-128) 시에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도 이미지가 매개의 역할을 한다.

시 수업에서 ‘심상’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이미지화와 관련된 개념이다.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접할 때 감각 기관을 활용하고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이미지화는 감각적인 사고와 관련이 깊고, 이미지화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시의 창작 주체는 관념 및 세계와의 관계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작 주체의 상상력, 창조적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즉, 시를 쓸 때 작가는 사물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서, 관념 등도 감각적으로 이미지화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상상력, 창조적인 사고를 동원한다.

(2) 시적 화자

‘시의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는 개념은 시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시가 형상화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 화자가 그려내는 세계는 독자가 시를 이해하는 순간에 독자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같은 맥락 속

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시적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뜻한다. 시에서 말하는 이란, 개별적이고 특정한 한 사람으로서의 시인이 아니다. 시의 작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의 효과를 위해 ‘나’로 표현하고 있는, 시에 속한 시적 주체를 뜻한다. 시에서 ‘나’라고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가와는 독립된 ‘나’이다.

시적 화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범맥락화된 주체’, ‘치환가능한 주체’, ‘고양된 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범맥락화된 주체란 시 속의 화자가 구체적인 맥락을 지닌, 특정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 즉 탈맥락화하여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치환가능한 주체’와도 관계된다. ‘치환가능한 주체’란 시를 읽을 때 독자가 시적인 화자, 곧 시 속의 ‘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독자는 시를 읽고 시의 화자에 접하면서 특정한 개인인 자신의 개성과는 무관하게 시적인 ‘나’에 동일시하게 된다. ‘고양된 주체’란 시적 자아가 실제 시인보다 우월한, 좀 더 장엄하고 숭고한 자아의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박현수 2020:251-262)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알고 시를 씀으로써 주제나 정서를 더 잘 표현하게 된다.

(3) 운율

운율은 시를 다른 장르와 구별 짓게 하는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이다. 시론에서는 시의 형식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 ‘운율’ 혹은 ‘리듬’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

운율과 관련하여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운율에 대한 교육이 낭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때 ‘반복’, ‘재미’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운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운율의 개념은 ‘시를 소리 내어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한 음악적 효과’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정정순2015:205-22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운율의 교육 내용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시에서의 운율의 개념은 영미권의 시와 한시와는 달리 운과 성조 등의 요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도 가르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읽을 때 시어의 표현으로 인한 느낌, 언어 표현에 의한 소리의 효과 등, 시를 읽을 때의 즐거움과도 관련된 운율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또한 시의 행, 연의 구분, 구두점 등은 의미에 영향을 주고 음성으로 실현될 때 소통에도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비언어적 자질로서 운율에 포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정정순2015:205-229)

시 쓰기에 있어서 시의 본질적인 요소인 운율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 쓰기의 교육내용에서도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요소와 함께 총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은유

은유는 시의 표현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시에서 쓰인 놀라운 은유는 시인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보여준다. 훌륭한

한 시인은 자신의 느낀 것을 다른 사물과 연관 지음으로써 독자에게 단번에 깨닫게 하고 새로운 각성으로 이끈다.

학교의 문학 수업에서는 비유법, 즉 문장에서 쓰이는 수사법의 하나로 은유법을 살펴보지만, 은유는 시에서 더 큰 틀로 인식될 수 있는 개념이다.(안무현2007:18) 은유를 포함한 비유는 인간의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두 대상을 단순히 병치한다는 점에서 은유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대상들이 논리-통사적 관계로 의미 있게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는 전체 맥락 속에서, 다른 시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정정순 2007:107-131)은 시 수업에서 은유를 가르칠 때 시사점을 준다.

은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겉으로는 다른 대상과 동질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은유이고, 은유를 통해 독자는 다른 것, 새로운 것에 접하면서 환기되고 자신의 세계를 넓히게 된다. 표현 주체가 시에서 자기 내면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유를 쓴다. 은유를 비롯한 이들 비유는 시어, 시구에 사용되어 전체의 의미에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시 교육에서는 비유가 쓰인 한 문장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은유와 비유를 바라보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나. 교수요목에서의 개념 지도 시 주안점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시의 주요 개념들을 문학적 이론과 지식 측면에서 가르치는 대신 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

신의 사상과 정서,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본 밑바탕이라는 점에서 가르쳐야 한다.

시를 즐겨 쓰고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언어와 이웃, 사회로 관점과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의 이해에 필요한 요소를 근본적인 의미에 한하여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념의 교수에 있어 주안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시의 주요 개념 >

개념	주안점
이미지	* 시를 읽었을 때 눈앞에 그려지거나 감각적으로 연상되는 모습과 관련됨 *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식하기 위해 감각을 활용하여 표현함 * 느낌과 생각도 감각과 연결하여 구체화하고 상상력으로 형상화할 수 있음
시적 화자	*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뜻함 * 시의 어조를 이끄는 사람으로, 시에서 일관성을 부여하는 요소이기도 함 *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부여받은 특정 인물로 시적 화자를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상황을 벗어난 보편성을 지닌 인물의 내면을 찾을 수 있음 *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에서도 ‘나’로 표현되는 시적

	화자에게 작가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여 상상과 창조로 연결할 수 있음
운율	* 시의 가락, 리듬 * 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들리는 소리의 느낌과 관련됨 * 시어의 선택에도 운율을 고려할 수 있음 * 시와 노래의 연관성-노래 가사가 시가 된 것을 찾아보고 운율을 생각해 봄 * 운율이 느껴지는 시를 찾아 읽어 봄
은유(비유)	* 시에서 두 사물이 겉으로는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여 서로 연관 지은 표현을 찾아봄 * 시에서 대상과 이를 비유하고 있는 사물을 찾아봄 * 시에서 은유로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봄

다. 교재의 시 선정

좋은 시를 많이 읽어 보는 것은 시 쓰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KSL 학습자인 중고등학생의 시 쓰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는 어떠한 것인가?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는 시의 요건은 문학적 요인, 교육적 요인, 학습자

의 요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왕녕2014:69-70)

문학적 요인은 시의 문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에 예술적 완결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교재로 선정되는 시는 문학적 장르로서 시가 가지는 특징을 잘 나타내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시여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적 요인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과 인식에서 교육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요인은 교재로서의 시가, 시를 배우는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생활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시의 내용과 정서에 공감하게 한다.

교재의 시로, 문학적인 요소의 특징을 드러내며 시의 감흥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대상을 보며 인간의 진실하고 솔직한 면을 드러냄으로써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이 되며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시를 선정해야 한다.

중등 KSL 학습자의 시 쓰기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요인이 중요하다. 시 이해 및 감상 교육과는 달리 시 쓰기 교육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나도 시를 쓸 수 있겠다’, ‘시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삶에서 친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 그들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시가 교재로 선정될 때 학습자들은 더 흥미를 느끼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들 중에서 문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를 택해 교재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들은 KSL 학습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시를 택해 본 것이다. 시인 하종오의 “원어”는 다문화의 삶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이성영 외2021:39) 그리고 3편의 시, “나무”, “시간”, “제주도”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중고등학생이 쓴 시이다. (임정민2020:43,52,67) 마지막의 시 “신기한 존재들”과 뒤에 나오는 교수·학습지도안에 제시되는 “내 방의 주인”은 중학생이 쓴 시로서, 학생들의 시를 교사가 묶어서 발간한 시집에 들어있다. (김영호·최은숙2018:33,40)

학생들의 시는 자기 생활 주변의 대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시집으로 출판된 점에서 어느 정도 문학적인 감수를 받았다고 보아 전문적인 시인은 아니지만 시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할 때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고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시 쓰기 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어 제시해 본다.

<표8 학습자료1>

원어(原語)

하종오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들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획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참 자고 일어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표9 학습자료2 - 학생 시>

나무

고려원

생명체들의 편안한

휴식처

계절을 알려주는

알람시계

먼지 속에서도 열일하는

공기청정기

없으면 안되는

필수품

<표10 학습자료3 - 학생 시>

시간

이연수

시간은 정말 신기하다
지루하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

시간은 정말 신기하다
즐거울 때는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시간은 정말 신기하다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느껴질 뿐이다.

<표11 학습자료4 - 학생 시>

제주도

임수현

제주도는

좁다

작은 상자처럼

좁다

인사를 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한 관계

마주쳐도 인사도 못하는

내 마음도

좁다

제주도처럼

<표12 학습자료5 - 학생 시>

신기한 존재들

임민규

공부할 때 안 온다

게임할 때 온다.

운동할 때 안 온다

TV 볼 때 온다

숙제할 때 안 온다

핸드폰 볼 때 온다

신기한 존재들

우리 부모님

위의 시들 중에서 학생이 쓴 시에는 자신의 일상 체험이 녹아 있다. 자신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대상에 대해 또는 사람과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시를 통해 잘 전해진다. 자신에 대한 생각, 사물에 대한 깨달음, 가까운 소중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감을 주고 또한 학창 시절을 경험한 성인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준다.

이렇게 학습자들에게도 친숙한 생활 속의 체험이 표현되어 있고, 문학적인 기교가 뛰어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 아니라 읽으면서 자신도 시를 쓰고 싶고 쓸 수 있겠다고 느끼게 하는 시들을 교재로 제시하면 시 쓰기에 쉽게 다가가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료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쓴 시는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문인의 작품 중에서도 교재의 시로 선정할 수 있다. 앞에서 교재로 예를 든 시, 하종오의 “원어”는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두 여인의 여행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과 향수, 그리고 야기에 대한 모성을 느끼게 하며 진실함을 전한다. KSL 학습자들은 이 시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정서를 잘 느끼고 공감하며 시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문인이 쓴 시들 중에서 학습자에게 시적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시에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잘 알려진 시인의 작품으로만 교재를 구성한다면 학생들은 훌륭한 작품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즉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진실한 느낌을 시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의 뛰어난 표현 기법만을 모방할 여지를 주게 된다. 이 점에서 교재의 선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시 쓰기 교수·학습지도안

시 쓰기를 가르치는 수업 중에서 시의 단계를 지도하는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등 KSL 학습자가 한국어로 시를 써보는 수업에서 시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자신의 체험에서 시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찾아 시 쓰기 단계에 따라 시를 쓸 수 있게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에서 시 쓰기의 단계를 알고 단계별로 시를 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하였다. 특히 표현하기 단계에서 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생각의 덩어리 쓰기’, ‘시로 표현하기’, ‘배치 정하기’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생활과 감정을 잘 느끼게 해주고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학생의 시를 교재로 택해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자료의 시가 어떤 점들을 고려하였는지 단계별로 확인하고 유추해 보는 활동을 교수□학습지도안에서 제시하였다.

<표13 교수·학습지도안

내 방의 주인

전종환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두 번째 서랍에

엄마, 후드 티 어디 있어?

옷장 속에 있잖아

어? 없었는데……

난 가끔 생각한다.

내 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엄마인 것 같다고

<표14 시 쓰기 교수·학습지도안>

주제	시의 단계 이해와 시 쓰기
학습 목표	* 시 쓰기의 과정으로서의 시의 단계와 주안점을 안다. *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쓸 수 있다. * 시의 단계에 따라 실제 시를 써본다.
학습 대상	KSL 중고등학생 학습자

단 계	교수·학습 내용
도 입	좋은 시 낭송하기 * 시 몇 편을 같이 낭송하기 * 낭송한 시의 느낌 말하기 * 시를 잘 쓰기 위해 시 쓰는 절차를 생각해 보기
전 개	시의 단계 이해 * 글감 찾기 → 중심 시상 정하기 → 표현하기(생각의 덩어리 쓰기, 시로 표현하기, 배치 정하기) → 다듬기 → 나누기 * 시 쓰기의 단계와 주안점 알기 시 쓰기 단계 유추하기 * <표13 교수·학습지도안 자료-학생 시>를 읽고 시 쓰는 과정을 유추해 보는 활동 제시

• 학생 활동 - 학습자료의 시를 읽고 단계별 활동을 유추하여 내용 적어보기 - 발표하기 • 교사의 내용 정리	
글감 찾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 *집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학교나 학원에서 보고 들은 일 중에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본다.
중심 시상 정하기	*집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시로 쓸 것을 정한다. *엄마와 있었던 일을 택한다. *나의 생활에서 늘 챙겨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엄마를 생각한다.
표현하기	생각의 덩어리 쓰기 *엄마는 늘 나를 잘 챙겨주시는데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신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엄마에게 여쭙고 엄마는 늘 알려 주신다. *나는 엄마에게 내 옷이 어디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거의 매일같이 엄마와 하는 대화를 써본다. -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그리고 옷은? 왜 없지? 지금 나가야 하는데 - 서랍에 넣어 놓았어. 옷은 옷장에 있고. 잘 찾아봐. 네 것은 다 네 방에 넣어두었다. - 아, 여기 있네! 나는 늘 내 것을 잘 찾지를 못하네! - 자기 물건은 스스로 정리해 봐.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표 현 하 기)		- 네, 그럴게요…. 등등
	시로 표현 하기	*‘생각의 덩어리 쓰기’에서 엄마와 내가 나눈 대화를 쓴 것 을 보며 시를 쓴다. *엄마와의 대화 부분을 시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로 써본다. *시에서는 대화를 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 고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해본다. *엄마의 도움 뒤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덧붙여 표현한다. 엄마에 대한 내 마음을 직접 설명하듯 알려주지 않고 시를 읽으면 느낄 수 있게 표현해본다.
	배치 정하 기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을 여러 개 썼다면 시상의 연결로 보아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본다. *시상이 엄마와의 대화만으로 충분한지 생각해 본다. *나의 속마음을 시의 어느 부분에 쓸 것인지, 여러 군데 표 현했다면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해 본 다. *시상의 흐름과 전개가 자연스럽도록 시상을 배치한다.
	다듬기	*시의 시상과 전개, 표현에 있어 고칠 점이 있는지 확인한 다. *시의 어조가 일관적인지 생각해 본다. *시가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지 생각해 본다.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지 생각해 본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나누기	*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서로 나눈다. *친구들이 시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고 조언해 주는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 *친구들의 조언에 공감하면 자신의 시에 피드백을 반영한다.
	시 쓰기 활동하기 * 시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서 시 쓰기를 함 * 시의 단계에 따라 시 쓰기를 진행함	
정리	요약정리 및 차시 예고하기 *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시의 각 단계에서의 주안점을 알고 시 쓰기의 단계에 따라 시 써보기 * 차시 예고 - 시 완성한 후 발표하기 및 나누기	

시의 단계를 아는 것은 시를 쓰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게 도와준다. 단번에 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알고 하나씩 절차대로 해가며 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계의 과정별로 세부 내용을 적어보면서 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글로 쓰고 모은다. 그런 다음 그 글 중에서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을 택하고 더 통일성 있게 다른 부분의 내용을 추가해 나간다. 동시에 시적 감흥을 잘 전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에 대해 숙고하고

중심 시상을 잘 형상화할 수 있는 배치도 생각하고 정한다.

시의 단계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도 직접 써보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먼저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시를 택하여 그 시를 가지고 역으로 시가 완성되기까지 단계를 유추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시를 쓰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면 자신이 직접 시를 쓰기 전에, 좋은 시를 택해서 그 시가 쓰이는 단계를 유추해서 단계별 내용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차시에 시를 고치고 다듬어 완성한 후, 발표하고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할 것임을 예고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V. 결론

본고는 한국어교육에서 중등 KSL 학습자를 위한 시 쓰기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시 쓰기 교육을 논의함에 있어서 문학 교육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국어교육 쓰기 영역에서의 교육으로 접근한다.

이제까지 시 쓰기는 문학교육에서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교육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학습자는 시를 즐겨 쓰지 않고 오히려 시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문학에서 요구하는 시 쓰기는 전문적인 문인들이 가지는 창작 기준을 은연중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시 쓰기에 문인의 창작 작품에서와 같은 완성도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시를 즐겨 쓰고 시에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시 쓰기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목표인 한국어의 사용 능력의 신장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어교육 쓰기 영역에서 글쓰기의 하나로서 시 쓰기를 교육할 때, 중등 KSL 학습자는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이룰 수 있다. 실용적인 글을 쓰는 것에서 나아가 시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데에 이바지한다. 사회생활에서 많은 부분은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시 쓰기는 정신과 감정,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다시 서로 조정해나가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시 쓰기를 통해 중등 KSL

학습자는 한국인의 시 형식으로 감정과 정서,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시를 읽는 독자와 소통함으로써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를 즐겨 씀으로써 한국어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II장에서 쓰기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문학적인 글쓰기가 갖는 효용과 문학치료적 접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글을 쓰기 위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색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을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글을 써보며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우는데, 시 쓰기를 통해서도 언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정보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글만이 아니라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로서의 시 쓰기 역시 쓰기에서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문학적인 글쓰기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으로 힘들음을 경험하는 중등 KSL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시 쓰기를 통해 자신과 사물, 이웃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닿아 있다.

III장에서는 KSL 쓰기 교육을 고찰하며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교수요목을 살펴보았다. 교재의 구성을 살펴볼 때 문학적인 글로서 넓은 의미의 수필로 쓸 수 있는 글은 서너 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 쓰기는 교수요목에 들어있지 않다. 시가 문학적 특징을 갖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내용을 배우기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글 역시 목적에 따라 각각 알맞은 내용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식이

있다. 보고서, 안내 글, 광고 글, 논설문 등을 쓸 때 각각의 목적에 따라 포함할 내용과 알맞은 적절한 형식을 택한다.

시 역시 체험 속에서 자신이 맞닥뜨린 진실한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시적 감흥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시 쓰기를 지도하면 될 것이다. 시 쓰기에서 문인들과 같은 전문적인 완성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 KSL 학습자가 한국어로 시를 쓰는 경험을 하고 한국시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정서적 측면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중등 KSL 학습자의 시 쓰기를 위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앞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KSL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를 지도하기 위해 목표와 지도 원리를 제시하였다. 시 쓰기의 단계를 제시하고 각각 주안점을 밝혔다. 시를 쓰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운 학습자들이 단계의 과정을 밟아 시를 써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시를 바로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생각의 덩어리를 쓴다고 여기고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시적 감흥을 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어의 선택과 시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로 표현하기, 중심 시상이 잘 드러나도록 배치를 생각하고 정하는 배치 정하기 등의 세부 과정을 제시하며 시 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지도안에서 각 단계별 내용과 특히 표현하기 단계를 잘 알 수 있도록 학생이 쓴 시를 자료로 제시하여 그 시의 단계별 내용을 유추해 보게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시의 단계에서의 내용을 알고 그 과정을 따라 함으로써 시를 쓰게 되도록 안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등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 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그 교육 방안의 기본적 설계 원리와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KSL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인데,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시작점이 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후에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이 더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어교육 쓰기 영역에서 시 쓰기를 논의하는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여 이후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더 세분화되고 심화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곽효환·인선주(2013),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시 교육 고찰- 제 7차 교육과정 시 교육과 시 쓰기 중심으로」, 어문연구 78, 261-299, 어문연구학회
- 교육부(2017), 「한국어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7-3호 [별책 43]
- 국립국어원(2018), 『2018년 중고등 한국어(KSL) 교재개발』, 국립국어원
- 김남희(2017), 「문학치료적 관점에서의 시 쓰기 교육 연구-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6, 67-91, 한국문학치료학회
- 김민재(2016),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호·최은숙 엮음(2018), 『와, 드디어 밥 먹는다』, 창비교육
- 박영목 외(2008),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 박현수(2020), 「서정시의 화자 개념과 갈래적 특성 고찰」, 어문론총 85, 239-268, 한국문학언어학회
- 손정희(2020), 「글쓰기문학치료가 대학생의 불안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와융합 42, 339-365, 한국문화융합학회
- 신윤경(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주철(200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혜령 외·국립국어원 기획(2019),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 마리북스

- 심혜령 외·국립국어원 기획(2019),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2』, 마리북스
- 심혜령 외·국립국어원 기획(2019),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3』, 마리북스
- 심혜령 외·국립국어원 기획(2019),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4』, 마리북스
- 안무현(2007), 「은유적 표현을 활용한 시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희선(2014), 「패러디를 활용한 시 창작 교육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문석(2012),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5, 149-176, 한국근대문학회 1,
- 오지혜(2021),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국어 교육 연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선칭어문 49, 319-355,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 왕녕(2014), 「한·중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 비교 연구-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희(1995), 「메타언어적 시 쓰기와 창작 교육의 가능성」, 선칭어문 23, 75-94,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 유영희(1999),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희(2003),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 교육론』, 역락
- 윤여탁(1996), 『시 교육론: 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 이봉희(2006), 「시/문학치료와 문학수업, 그 만남의 가능성 모색」, 한국문

- 예비평연구 20, 103-128, 창조문학사
- 이성영(2007),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우리말교육현장
연구 1, 103-128,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이성영 외(2021), 『[고등학교]국어』, 천재교육
- 이오덕(2004),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도서출판보리
- 이지엽·유동순(2011), 「詩 쓰기 교육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 초·중·
고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4, 155-190, 한국언어문
학교육학회
- 이향근·엄혜영(2015), 「황동규 작시법 적용한 시 창작 교육방법 시론」,
한국초등교육 26, 183-195, 서울교육대학교
- 임정민 외(2022), 『소중한 사람』, 다락방
- 정성욱·채연숙(2018),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서술정체성-대학생의 문학
치료적 글쓰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
어 40, 615-628,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조연아 (2018), 「은유의 치유적 특성을 활용한 시 창작 교육 방법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순 (2005), 「시작(詩作) 과정에서의 운율의 작용 방식 연구」, 선청어
문 33, 525,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 정정순 (2005), 「운율 실현의 원리를 활용한 시 쓰기 교육 연구」, 문학교
육학 18, 487-513
- 정정순(2005), 「시적 형상성의 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정순(2007), 「구조적 은유를 활용한 시 ‘이어쓰기’ 교육 연구」, 문학교
육학 24, 107-131
- 정정순(2007), 「쓰기 영역에서의 시 쓰기 교육 내용 설정론」, 한국초등국

어교육 33, 247-270

정정순(2015). 「현대시 교육에서의 운율 교육내용 재설정 연구-운율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8, 205-229, 한국문학교육학회

정정순(2018), 「담론적 실천으로서의 자화상 시 쓰기의 문학교육적 의미-연술 행위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6, 93-121, 한국문학치료학회

주강식(2006), 「비유적 표현을 통한 시 쓰기 지도 연구」, 어문학교육, 301-320

주재환·윤보은(2015), 「KSL 학습자 다문화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윤동주 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28, 5-3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